

| | | | |
|-------|--|------|----|
| 사업기관 | 고용복지법센터 | | |
| 사업명 | 북한 해외노동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 방안 수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 | |
| 사업책임자 | 성명 | 소속 | 직위 |
| | 이철수 | 법과대학 | 교수 |
| 사업기간 | 2018.4.1. ~ 2019.2.28 | 사업비 | |

1. 사업목표

고용복지법센터는 2015-2017년도 통일기반 구축사업을 통해 축적된 역량과 네트워크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8년도 연구에서는 ‘북한 해외노동자’(North Korean overseas workers)의 인권 및 노동권 보장, 사용국에서의 노동법 준수, 이들에 대한 법정책적 지원방안을 구체적이며 학술적으로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2018년도에는 전년도부터 기획한 고용복지법센터 편저 단행본인 「북한 해외노동자의 삶과 실태 및 권리 보호방안」 출간을 목표로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 본서에서는 북한 해외노동자의 주요 파견국에서의 근로조건을 중심으로 한 실증연구는 물론이며, 더 중요하게는 이들을 법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장기적으로 북한 해외노동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북측 및 이들이 파견된 국가의 경제교류 및 법제 협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의 연구를 담고자 하였다.

글로벌 저성장 기조 속에서 노동력 부족현상 및 북한의 경제적 필요가 맞물려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최근 남북경협 재개 동향 등을 고려할 때 북한 해외노동자들을 둘러싼 제반 현상을 심도있게 연구하여 궁극적으로는 남북 통일 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도록 유도하는 법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한다.

2. 사업의 내용

고용복지법센터 2018년도 연구에서는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가급적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으며,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된 국가들의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규율 및 제도가 이들에

대해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한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EU법 등 이주노동자를 규율하는 보편적 법적 규범들이 북한 해외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북한 해외노동자 및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 및 투자기업에게 어떠한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한지를 분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연구 성과와 국제학술교류를 바탕으로 러시아, EU지역 등의 북한 해외노동자를 연구하는 타 기관 및 연구자들(네덜란드 Leiden Asia Centre, 와세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등)과 협력하고 공동 집필진을 섭외하여,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단행본으로 발간하고자 하였다.

3. 사업의 성과

고용복지법센터 2018년 연구사업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및 해외 관련분야 연구자들과 협력하여 「북한 해외노동자의 삶과 실태 및 권리 보호방안」 단행본 작업을 완료하였다(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년 상반기 출간 확정). 본서에서는 자본주의 이행경제의 과정을 체험한 북한 해외노동자를 노동법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이들이 통일 준비에 줄 수 있는 유의미한 법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기존 연구의 단순 실태조사성 분석을 넘어 법학 관점에서의 심층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러한 연구성과를 일회성 보고에 그치지 않고 학술적 수준으로 심화하고, 공신력 있는 출판기관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에서의 발간을 확정함으로써 학계 및 일반에 연구 성과를 전파하고 서울대학교 통일기반 구축사업의 대내외적 인지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해외 저명 노동법학자들의 지구화시대의 이주노동, 취약노동, 인신매매성 노동에 대한 연구 네트워크 및 학술 세미나(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 법과대학(Tel Aviv University, Faculty of law)의 “Labor perspective to human trafficking” 학술 세미나)에 참여하여 연구 성과를 발표함으로써 고용복지법센터는 물론이며 통일기반구축사업의 국제 교류에 기여하였다. 북한 해외노동자는 글로벌 경제의 관점에서 필연적으로 국제적 접근이 필요한 연구로서, 해외 전문가 및 관련기관과 교류하며 공동연구의 기틀을 확립하고 향후 연구사업의 지속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한 점을 들 수 있다.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

1. 사업 내용

1) 당초계획

□ 개요

- 사업명: 북한 해외노동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 방안 수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 기관명: 고용복지법센터
- 총 사업비:

□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고용복지법센터는 지난 2015-2017년도 통일기반 구축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하여 지난 2015-2017년도 사이 이들의 인권 및 노동권 등 법적 권리 보장, 수용국에서의 노동관계법령 준수, 이들에 대한 법정 책적 지원방안 모색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바 있음.
- 2015년도 사업에서는 「통일대비 접경지역 북한노동력 실태조사 및 시사점」을 주제로 현재 많은 국가들에 파견되어 있는 북한 해외노동자 중에서도 이들의 규모가 가장 큰 중국 및 러시아를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이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여 학계와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으며, 통일부 경제사회분석국 등과 특별 강연을 통해 교류하였음.
- 2016년도 사업에서는 「북한 해외노동자의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심화 연구를 지속하였으며, 2016.11 국제학술대회 “North Korean Workers in a Migrant Labour Perspective”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본 학술대회에서는 러시아, 폴란드에서의 북한 해외노동자 실태와 노동법적 문제, 이주노동 관점에서의 검토 등 다각적 접근 및 해법이 모색되고, 학계 및 관련기관의 많은 관심을 받고 주요언론에 보도된 바 있음.
- 2017년도 사업에서는 “북한 해외 파견노동자의 현황과 인권실태 및 개선책” 제하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와세다대학교 한국학연구소와 공동주최) 몽골, 폴란드, 아프리카 등의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최근 동향을 공유하고 연구범위

를 확장하였으며, 이후 고용복지법센터 편저 학술서적인 「북한 해외노동자의 삶과 실태 및 권리 보호방안」(가제) 집필을 시작하여 공동연구진들의 초안을 취합함.

○ 목적

- 고용복지법센터는 2015-2017년도 사업을 통해 축적된 역량과 네트워크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8년도 통일기반 구축사업에서는 북한 해외노동자의 인권 및 노동권 보장, 사용국에서의 노동법 준수, 이들에 대한 법정정책 지원방안 모색 등에 대해 연구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통일 대비 관점에서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에서 준비해야 할 다양한 법제도적 과제 제시를 목표로 연구하고자 하였음.
- 북한 해외노동자 파견국가들의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규율 및 제도가 북한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북한 노동자들 또는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 및 투자기업에게 어떠한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한지를 분석하고자 함.
- 특히 2018년도에는 기존 연구 성과와 국제학술교류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EU지역 등의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북한노동자를 연구하는 타 기관(네덜란드 Leiden Asia Centre, 와세다 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단행본으로 발간하고자 함: 「북한 해외노동자의 삶과 실태 및 권리 보호방안」(가제). 이를 통하여 북한노동자 연구의 지평을 확장할 뿐 아니라 더욱 심도 있는 연구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됨.
- 궁극적으로는 통일 대비 관점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과 임금 및 근로조건 등 노동권을 개선하며, 북측 및 이들이 파견된 국가의 경제교류 및 법제 협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의 정책을 제시하고자 함. 또한 이주노동 관점에서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의 하위 담당자로서 북한 해외노동자들을 둘러싼 경제적, 사회적 현상에 대한 학술적 의미를 도출하고자 함.

□ 기본방향

○ 인접분야 연구진 영입을 통한 학제적 연구

- 고용복지법센터의 법학분야 연구진을 기본으로 하되, 통일부, 개성공단 자문위원 경험자 등 실무자들의 감각에 입각한 의견을 종합함으로써 현실적이면서도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함.
- 특히 북한 노동자 실태조사의 경우, 한국 연구자들의 직접 현지 면담이 어려운 한계점들을 감안하여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한 해외 전문가 또는 연구자를 초빙하여 자문을 구함(고용복지법센터 2015-2017년도 사업에서

정치학, 사회학, 인류학, 북한학, 농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와 협력한 바 있음). 또한 연구의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해 귀 연구원(통일평화연구원)과 적극 협력하고자 하였음.

○ 국제협력: 타 기관과 공동연구 수행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 본 사업에서는 북한 해외노동자의 실태와 법적 과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하여 학제적 연구는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 EU 회원국 등 북한 해외노동자가 존재하는 국가들의 해당분야 연구자들을 섭외하여 자문을 구하고, 국제학술대회 및 초청특강 등의 형식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임.
- 특히 2018년도에는 기존 2015-2017년도에 축적한 연구역량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해 외국의 타 기관과 구체적인 공동연구 수행에 합의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구 수행을 기획하였음: ① 와세다대학교 한국학연구소와 협력연구를 통해 러시아 지역의 북한노동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기획하였으며, ② 네덜란드 레이던대학교 Leiden Asia Centre(Prof. Remco Breuker, Imke van Gardingen)와 협력을 통해 이주노동의 관점에서 본 EU 지역 및 중국, 러시아 지역 북한노동자 비교연구를 기획하였음.

□ 기대효과

○ 학술적 측면: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심층연구

- 본 연구사업의 기대효과로서 첫째, 학술적 측면에서는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넘어 법학 관점에서의 심층분석을 수행하고, 연구성과를 일회성 보고에 그치지 않고 학술적 수준으로 심화할 것으로 예상됨. 자본주의 이행경제의 과정을 체험한 북한 해외노동자를 노동법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이들이 통일 대비에 줄 수 있는 유의미한 법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며, 특히 2018년도 단행본 「북한 해외노동자의 삶과 권리 보호 방안」(가제) 발간을 통하여 학계 및 일반의 광범위한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 정책기관과 협력 및 서울대 통일기반구축사업 인지도에 기여

- 둘째, 정책적 측면으로는 북한 해외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해당국 노동법이 준수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들의 경험을 통해 통일 대비에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통일부의 관련부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 등 관련 기관의 전문가 초청강연을 개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은 물론 서울대 통일기반구축사업의 인지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학제간 연구 역량강화**

- 셋째, 학제간 협력을 통해 통일기반구축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연구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본 사업은 북한노동자를 이주노동의 관점에서 연구함으로써 다각도로 접근하였는데, 2015년 사업개시 때부터 농경제사회학부를 비롯하여 2016년도에는 정치학, 통일학, 인류학, 경영학, 2017년도에는 지역학, 역사학 등 분야 연구자와도 공동연구를 통해 다각도 분석을 도모한 바 있음.

○ **국제협력 측면에서의 기여**

- 넷째, 본 연구사업의 특성상 고용복지법센터는 물론이며 대학 차원에서의 국제 교류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북한 해외노동자는 글로벌 경제의 관점에서 필연적으로 국제적 접근이 필요한 바, 본 사업은 해외 전문가 및 관련기관과 교류하며 공동연구의 기틀을 놓고 있음. 네덜란드 Leiden Asia Center에서 시행중인 EU회원국 내 북한노동자 연구 프로젝트와 상호 협력하고 있으며 해당 연구내용은 2018년도 출간예정 단행본에 반영될 예정임.

□ **일정별 추진 세부계획**

| 일 정 | 추진 내용 |
|---|---|
| 1. 기초 준비 (2018. 4.1. ~ 2018. 6.1.) | - 기초자료 수집, 문헌구입 - 분석 대상국가 전문가 섭외: 북한노동자 전문 연구자, 체제전환국 법제 연구자 등. |
| 2. 현지조사, 전문가 자문 및 연구내용 집필 (2018. 7.1. ~ 2018.10.30.) | - 북한노동자 관련 내부 워크샵 개최 - 실태조사 및 문헌연구 집필 시작 - 2018. 9월 네덜란드 및 이탈리아 출장: 네덜란드 Leiden Asia Centre 및 Roma Tre Univ. 교류협력 |
| 3. 공개학술대회 개최 및 연구성과물 발간사업 (2018. 11.1 ~ 2019. 1.30) | - 연구성과에 대하여 고용복지법센터 국제학술대회 개최 - 포럼에서 도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성과물 발간 준비 - 연구성과에 대한 단행본(국문)출간 |
| 4. 결산 (2019. 2.1.~2019.2.28.) | - 결산 및 정리 - 최종보고서 제출 |

2) 실제추진 현황

□ 북한 해외노동자 주제의 단행본 기획 및 집필

- 단행본 제목: “북한 해외노동자의 삶과 실태 및 권리 보호방안”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상반기 출간 확정)
- 추진 경과: 2017년도 연구를 통하여 초안 취합, 2018. 8월 원고 수정 후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출간신청, 2018. 11. 수정의견 반영하여 재상정, 2019. 1. 출간 대상 도서 최종 확정(2019. 6. 출간 예정).
- 편저자: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다혜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 공동집필진: R.E. Breuker (라이덴 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학 교수) I.B.L.H. van Gardingen (네덜란드 변호사, 노동조합연맹 고문), 이애리아 (와세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교수), 이창호(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방일권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박수성(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원),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강민주(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원, 번역 참여).
- 단행본 주요내용 [이하와 같음]

제1장 북한 해외노동자는 누구인가? 기초적 사실과 연구의 필요성

- 저자: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다혜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 주요내용: 북한 해외노동자의 학술적 개념 정의, 이들 집단의 특수성과 연구의 필요성, 선행연구와 본서의 차별성,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기초적 사실을 개관한다. 북한 해외노동자 전체 규모에 대한 추정치와 파견되는 방식, 주요 파견국가들에서의 현황과 근로조건 등을 간략히 살펴본 뒤, 본론 각 장들의 주요 내용을 소개함.

제2장 러시아 연해주 및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 저자: 이애리아 (와세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교수), 이창호(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방일권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박수성(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원)
- 주요내용: 이 장은 201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 관련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들이 러시아 내 연구자 및 조사 협력자와 함께 연구팀을 구성해 사할린 지역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북한 노동자들의 생활 실태 및 인권상황에 대해 보다 실증적, 체계적으로 학문적, 정책적 연구를 시도한 결과물이다. 파견 북한노동자의 선발부터 입국과 귀국, 재송출에 이르는 과정, 파견 노동자

의 내부 조직과 임금 체계, 송금, 그리고 파견된 노동자 근무 현장의 실상과 사회적 연결망 인식의 변화 등 생활 실태 전반에 주목하고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연계된 러시아의 정책 실행, 현지 주민과 노동자간에 형성되는 사회적 연결망 등 현실을 살펴보는데 집중한다.

제3장 EU에서의 북한 해외노동자: 법의 준수와 집행의 중요성

- 저자: R.E. Breuker (University of Leiden, 아시아연구소 한국학 교수) I.B.L.H. van Gardingen (네덜란드 변호사, 노동조합연맹 고문)
- 역자: 강민주 번역(서울대학교 박사과정,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원), 이다혜 감수
- 주요내용 : EU 내 북한 해외노동자의 현황, 근로조건 및 특히 법적 관점에서의 접근하며, 폴란드의 상황을 중점적으로 논한다. EU지역의 북한 해외노동자 연구가 갖는 특수한 의미로서, 북한 해외노동자들이 주로 파견되곤 하는 구 공산권 또는 개발도상국인 국가들과는 달리 유럽은 노동과 인권에 대하여 비교적 선진적 법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EU회원국 내에서 북한 해외노동자가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어 있는지를 EU노동법, 근로감독 체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EU에서의 북한 해외노동자가 강제노동 및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밝힌다.

제4장 이주노동의 관점으로 본 북한 해외노동자

- 저자: 윤애림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 주요내용: 본 장은 북한 해외노동자 문제를 이주노동의 관점에서 주로 논한다. 북한 해외노동자가 정권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이행 경제기에 더 많은 소득을 위해 이들이 자발적으로 파견을 원하며 현지에서도 권리의식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점이 강조된다. 이들이 일터에서 겪는 여러 문제들은 일반적인 노동 및 인권문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임을 주장하며, 북한 해외노동자들의 노동과 삶을 개선하기 위한 남북한 정부 및 수용국의 의무에 대해 논한다.

제5장 종합 및 전망: 법제도적 해결방안의 모색

- 저자: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다혜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 주요내용: 본서의 결론 장인 제5장에서는 북한 해외노동자라는 주제를 보는 관점이 각도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그 모든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며, 이들의 권리 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복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본론의 내용들을 종합하고, 향후 전망과 과제를 제시한다.

□ **해외교류 및 연구성과 발표 (이스라엘 Tel Aviv University, Faculty of Law)**

- 출장기간: 2019. 2. 12. ~ 2019. 2. 15.
- 참가자: 이다혜 연구위원, 강민주 연구원
- 장소: 이스라엘 Tel Aviv University, Faculty of Law
- 출장 주요 내용[이하와 같음]

1) 북한 해외노동자 연구 내용에 대한 발표 (이다혜 연구위원)

- 발표제목: “North Korean Workers in a Migrant Labor Perspective: Their Life, Realities and Legal Issues”
- 일시 및 장소: 2019. 2. 13. 텔아비브 법과대학 내 회의실
- 참석 예정자: 이다혜, 강민주, Prof. Hila Shamir, Dr. Avinoam Cohen 외 법학 및 이주노동 관련분야 연구자 12인 가량.

2) 텔아비브 법과대학 Prof. Hila Shamir의 수행 연구과제인 “Labor perspective to human trafficking”과 본 연구와의 협력 방안 모색

- 위 연구과제는 이주노동에 대한 광범위한 4개년간의 학제적 연구로서, 이주노동력 송출국과 수용국간의 양자협약에 대한 법적 연구, 관련된 노동보호법 및 착취로부터의 보호에 취약한 영역에서의 법 준수의 문제, 인권 관점에서의 접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하여 연구하며 이주노동 분야 전문 연구자인 12명 가량의 다국적 학자로 구성되어 있음.
- 연구책임자 Prof. Hila Shamir (텔아비브 법과대학 교수, 주요 연구분야 노동법, 사회보장법, 이주노동 및 법사회학 이론, 여성주의 법학이론 등). 본 연구와 상호 협력방안 모색 예정.

3) Prof. Guy Davidov (Hebrew University, Faculty of Law) 교수 자문회의

- 일시 및 장소: 2019. 2. 14. 히브리대학 법과대학 내 회의실
- 참석자: 이다혜, 강민주, Prof. Guy Davidov, Tammy Katsabian(Hebrew University Faculty of law, PhD candidate) 등.
- Prof. Guy Davidov 교수는 국제 노동법 분야의 저명학자로서, 이스라엘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규율 및 유럽 노동법 관련 자문을 진행할 예정임.

3) 사업 내용별 운영 성과

□ 사업성과 (구체적 내용 기술)

- 첫째, ‘북한 해외노동자의 삶과 실태 및 권리 보호방안’ 단행본 발간을 통하여 자본주의 이행경제의 과정을 체험한 북한 해외노동자를 노동법적 관점에서 연구

하고 이들이 통일 대비에 줄 수 있는 유의미한 법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기존 연구의 단순 실태조사성 분석을 넘어 법학 관점에서의 심층분석을 수행하였음. 또한 연구성과를 일회성 보고에 그치지 않고 학술적 수준으로 심화함. 특히 공신력 있는 출판기관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에서의 발간을 확정함으로써, 학계 및 일반에 연구 성과를 전파하고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의 위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둘째, 해외 저명 노동법학자들의 지구화시대의 이주노동, 취약노동, 인신매매성 노동에 대한 연구 네트워크 및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연구 성과를 발표함으로써, 고용복지법센터는 물론이며 대학 차원에서의 국제교류에 기여함. 북한 해외노동자는 글로벌 경제의 관점에서 필연적으로 국제적 접근이 필요한 연구로서, 해외 전문가 및 관련기관과 교류하며 공동연구의 기틀을 확립하고 향후 연구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함.

□ 관련분야 기여도

○ 학술적 측면: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심층연구

- 본 연구사업의 2018년 주요성과로는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넘어 법학 관점에서의 심층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단순 일회성 보고가 아닌 단행본으로 출간하여 학술적 자료 구축 및 대중 확산에 기여한 것을 꼽을 수 있음. 본해의 주요 사업인 「북한 해외노동자의 삶과 권리 보호 방안」 단행본은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발간함을 통하여 학술적 권위와 일반에의 접근성을 도모함.

○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학제간 연구 역량강화

- 연구분야에 있어 법학에 한정되지 않고 학제간 협력을 통해 통일기반구축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연구역량을 강화하였음. 2018년도 주요 사업인 「북한 해외노동자의 삶과 권리 보호 방안」 단행본에는 노동법 뿐 아니라 지역학, 한국학, 통일학, 인류학 등 여러 분야의 저자가 참여하여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을 제시하였음.

○ 국제협력 측면에서의 기여

- 고용복지법센터는 물론이며 대학 차원에서의 국제교류에 기여하였음. 본 사업은 해외 전문가 및 관련기관과 교류하며 공동연구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관점에서 북한 해외노동자를 분석하고자 하였음. 이를 위하여 2019년 1월 글로벌 경제와 이주노동 관련 논의가 활발한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에서의 “Trafflab: A

Labour approach to trafficking project” 학술대회에 참여, 북한 해외노동자 관련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해외 학자들과 교류함.

2.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1) 자체평가

□ 사업평가

○ 사업의 적절성

- 고용복지법센터 2018년도 사업은 통일기반구축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매우 잘 부합하는 연구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기존에 통일과 관련된 타 분야에 비해 비교적 학술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북한 해외노동자 주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매년 전년도 연합학술대회에서 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 발전시켜 왔음.
- 법학분야에서 기존에 지속하던 북한법이나 통일법제 연구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법학에서는 전혀 연구된 바 없던 북한 해외노동자라는 새로운 연구주제를 시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점에서 주제의 시의성 및 중요성, 타 분야 연구자들 및 해외 연구자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공동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진행 및 방법론의 적합성을 모두 갖춘 연구로 인정받고 있음.

○ 사업의 효율성

- 고용복지법센터 2018년도 연구사업은 소기의 성과를 효율적으로 달성하였음. 올해년도 사업 구상시 기획하였던 북한 해외노동자 심층연구, 연구지역의 확장, 국제학술대회 참여, 그리고 본 주제에 대한 학술서적 발간 작업을 완성하는 등 소기의 목표를 대부분 달성하였음.
- 연구 초반부에는 해외 방문조사, 국내 학술대회 등을 기획하였으나 2018년도에는 연구성과물인 단행본 기획 및 집필에 집중하여 서울대 출판문화원 출간대상으로 최종 승인을 받고, 2019. 2월 해외 학술세미나 참여를 통해 해외 교류 강화 등 효율성을 제고함.

○ 사업의 영향력

- 고용복지법센터는 기존 연구 성과와 축적되어 온 국제학술교류를 바탕으로 중

국, 러시아, EU지역 등의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현장조사의 경험 및 북한노동자를 연구하는 타 기관(네덜란드 Leiden Asia Centre, 이스라엘 Tel Aviv University, 와세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당 기관 연구자를 공동저자로 초빙하여 연구성과를 학술적으로 축적하여 북한노동자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고, 동 주제에 대해 기존에 국내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심도있는 연구를 최초로 발간하게 된 점에서 통일 관련 연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사업의 홍보 및 인지도 측면에서, 고용복지법센터는 그간의 결과물을 단순한 연구보고서가 아닌 본교 출판사에서 공신력있는 학술서적 발간을 통하여 연구내용의 효율적 전파를 꾀하였고, 본 연구의 목적 및 전문성에 명확히 부합하는 해외 이주노동, 노동과 인신매매 연구를 진행하는 프로젝트성 학술세미나 발표 및 교류를 통하여 학술성과 전파 및 해외 교류협력의 내실을 도모하였음.

○ 사업의 발전가능성

- 2019년 상반기에 출간 예정인 고용복지법센터의 「북한 해외노동자의 삶과 실태 및 권리 보호방안」 단행본을 통해 북한 해외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해당국 노동법이 준수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들의 경험을 통해 통일 대비에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므로 학계 뿐 아니라 일반 대중의 관심을 환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발전가능성이 매우 큼.
- 향후 유관기관에서의 강연 및 학술대회 등을 통해 정책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온 네덜란드 Leiden Asia Centre, 와세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교 법과대학 등과 보다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노동 및 통일문제 관련 주요 학술행사 및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음.
- 특히 최근 남북경협 재개의 전망과 함께 북한 해외노동자들에 대한 연구는 통일 대비 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됨. 타국에서 취업 경험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북한 해외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한 연구는 남북경협에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가질 것으로 예측되므로, 본 사업의 발전가능성이 크다 하겠음.

□ 미흡한 점(한계) 및 개선(보완)할 점

- 고용복지법센터 연구결과물인 단행본 ‘북한 해외노동자의 삶과 실태 및 권리 보호방안’ 발간 기획에 있어, 공신력 있는 출판사에서 발간을 위해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에 상정하였으나 해당 출판원의 분기별 원고 접수 및 심사절차에 시간이 소요됨으로서 최종 출간일이 2018년도 사업 종료 이후로 변경된 점은 아

취임으로 남음.

- 그러나 단행본 발간사업의 특성상 상당 시일이 소요되며, 더 완성도 있는 결과물로 출간하기 위해 불가피한 과정이므로 향후 사업 일정 기획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완하고자 함.

□ 향후 계획(내년 계획)

- 고용복지법센터는 향후에도 통일기반 구축사업에 적극 참여할 예정임. 현재까지 연구성과물을 학술적으로 심화, 발간하는 것에 주력한 바, 추후에는 발간물의 국내외 확산에 집중할 계획임. 주요 내용으로는 단행본에 대한 국내 학술대회 혹은 북콘서트 개최, 또한 단행본에 대한 영문 발간물 등을 기획하고 있음.

2) 건의사항

□ 사업 진행 관련

- 서울대학교의 통일 학술연구 허브로서의 위상을 견고히 하기 위한 통일기반구축 연구 사업은 매우 시의성있고 중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복지법센터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노동법, 사회보장법 연구 선도 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함.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허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참여 연구진들간의 교류를 보다 활발히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함. (귀 연구원 주최 월례 세미나, brown bag 포럼 등).

□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 예산 편성이 각 사업주체별로 배정되지 않고, 소속기관인 법학연구소에 여러 통일기반구축사업 참여기관(총 2개 기관)의 예산이 일괄 편성되어있음.
- 참여기관별로 예산과목 및 비목 등의 편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일괄 관리함에 따라 새로이 상위의 예산과목이 편성되거나, 실제 사업계획서상 신청한 예산과목명과 다르게 편성되는 경우가 있어 예산 집행시 혼란이 있음. 비슷한 용도의 집행예산이 기관별로 '연구과제추진비' '회의비' 등 다르게 편성됨으로서 예산 집행 시 혼동의 여지가 있었으며 실제 예산과목 변경 등의 행정소모가 발생함. 또한 연구비 잔액 등도 일괄적으로 확인 할 수 없고, 센터별로 결의내역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등, 혼선과 소모가 큼.
- 법학연구소 내의 단일 예산편성으로, 타 사업참여기관이 예산집행 상 문제가 생길 경우 본 센터에서도 영향을 받는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예컨대 지출결의기한을 초과하여 카드사용이 정지되는 등). 이에 향후 사업 예산 편성시, 동일한

상위기관 소속이라도 서로 다른 연구사업을 진행할 경우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기타

-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연구를 주로 다루고 있는 본 연구의 사업특성상 해외 연구자와의 교류 및 현지 방문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총 예산 규모가 축소되어 사업 계획의 일부분이 변경된 점은 아쉬움. 향후 사업의 주제와 규모를 고려한 예산을 책정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참여 연구원 인건비를 성과급에 준하는 성격으로, 즉 연구 성과 발생 후 지급간격을 멀리하여 집행하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매달 집행 가능한 방향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임. 이 부분을 매년 건의하고 있으나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
- 대부분의 참여연구원은 대학원생이므로 연구책임자의 지시 하에 연구를 진행하게 됨. 학생 개인이 개별적 성과를 내고 그에 연동하여 성과급 성격으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장기적으로 다음세대 통일분야 연구자를 교육 및 양성하는 본 사업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적절치 않음.
- 연구원들은 각 기관 연구책임자의 지도 및 교육하에 통일관련 연구를 잘 학습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매월 지급가능한 인건비 또는 장학금 형태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3. 관련자료

□ 대표적 사업 실적

- 2019. 1. 31. 이철수 · 이다혜 편저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북한 해외노동자의 삶과 실태 및 권리 보호방안』 단행본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9년 출간예정 도서) [☞ 단행본(도서) 1.]